

기재 신광한의 작가의식에 대한 일고찰

— 驪興 地域이 가지는 意味를 中心으로 —

손 유 경 *

<目次>

- | | |
|------------------|-----------------|
| I. 序言 | III. 寓居期 交遊詩 研究 |
| II. 驪興 地域 卜居의 意味 | IV. 結語 |

<국문 초록>

企齋 申光漢(1484(성종 15)-1555(명종 10))은 16C 중종대를 대표하는 문인이다. 조부인 申叔舟(1417-1475)로부터 이어 받은 가학으로 학문적 조예가 깊었고, 거기에 趙光祖(1482-1519) 등 사림파들과 교류하면서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아 개혁 성향을 지닌 실천 지식인으로서의 지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己卯士禍가 일어나자 탄핵을 받아 삼척부사로 좌천되었고, 이듬해에 파직되었다. 이렇게 예기치 않은 政爭에 휘말려 정치적 기반을 상실한 신광한은 이후 15년간 驪興[현 경기도 여주시]에서 칩거하였다.

본고는 신광한의 문학작품을 그의 의식세계와 연계하여 살피려는 연구 목적의 一環으로 신광한의 문학작품을 그가 거주했던 지역과 연관지어 살펴보았다. 작가가 처한 地理的 位置와 자연 환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작가의 작품 세계에 투영되는데 특히 신광한에게 京畿道 驪興과 江原道 眞珠[현 강원도 삼척시]가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았다. 두 곳은 작가가 失意 후 만나게 되는 공간이라는 점과 문학 세계 구축에 있어 진전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준 장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연구원 / curator98@hanmail.net

소리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경기도 여흥과 강원도 진주 중에서 본고는 우선 경기도 여흥 지역이 신광환과 그의 문학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어 고찰하였다.

우선, 그가 경기도 여흥 지역에 卜居한 이유를 서울과의 근접성을 염두에 둔 신원복권의 도모, 경기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 세력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여흥 지역을 기반으로 지어진 시 작품들을 중점적으로 감상하였다. 원형리 기재에서는 일상적인 강학과 至親의 방문에 응하는 작시 활동이 이루어졌고, 청심루와 팔대수에서는 여주목사의 초대를 받은 선비들과 그 선비와 함께 하는 유생들을 중심으로 술한 詩宴과 酒宴이 이루어졌으며, 신록사에서는 멀리 떨어진 친우들과 그간의 회포를 풀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재 신광환의 경우에 국한하여 분석한 본 연구가 16C 경기도 지역에 낙향했던 일군의 문인들의 성격을 포괄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적 취약을 안고 있는 이 시기 사림 문학에 대한 지역학적 접근은 신광환의 의식세계는 물론이고 동시대에, 같은 아픔을 지니고, 같은 지역에 살았던 이들의 내면세계를 살피는 데에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주제어】 申光漢, 16세기, 사림파, 驪興

I. 序言

企齋 申光漢(1484(성종 15)-1555(명종 10))은 16C 중종대를 대표하는 문인이다. 조부인 申叔舟(1417-1475)로부터 이어 받은 가학으로 학문적 조예가 깊었고, 거기에 趙光祖(1482-1519) 등 사림파들과 교류하면서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아 개혁 성향을 지닌 실천 지식인으로서의 지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己卯土禍가 일어나자 탄핵을 받아¹⁾ 삼척부사로 좌천

1) 『中宗實錄』, 「中宗 14年 12月 14日條」, “又列書安瑒 崔淑生 李紆 柳庸謹 申光漢 鄭順朋 韓忠 鄭膺 崔山斗 張玉 李希閔 李清 梁彭孫 具壽福 鄭浣 李延慶 李若水 權碩 巴陵君璫 詩山副正正叔 嵩善副正瀆 長城守儼 江寧副正祺二

되었고²⁾, 이듬해에 파직되었다.³⁾ 이 때 申光漢은 “어리석고 망령되게 서로 친하게 상종하였다.[愚妄徵逐]”는 죄목으로 거론되었다.⁴⁾ 이렇게 예기치 않은 政爭에 휘말려 정치적 기반을 상실한 신광한은 이후 1538년 (중종 33) 成均館 大司成에 임명될 때까지⁵⁾ 15년간 驪興[현 경기도 여주시]에서 칩거하였다.

신광한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임채명이 그의 논문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⁶⁾에서 企齋詩를 내용·형식상의 분류를 통해 세밀하게 분석하였고, 이 외에도 문학과 관련한 다수의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다.⁷⁾ 선행 연구를 통해 신광한의 문학 작품의 내용과 풍격에 관한 개별적인 분석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探討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개별 작품 역시 작가의 삶의 여정과 그에 따라 변모되는

十三人名以啓曰 此皆朴世熹等類也 與趙光祖交相朋比 相投宿于家 及其政事時 其所擬望與論駁 皆自私論預定 使至擾亂 若不同其罪 則彼被罪者 亦不得便心矣 附會光祖者亦多 此特抄其甚者耳 請與被罪者 同其罪 [또 …신광한… 등 23인의 이름을 열거해 써서 아뢰기를 ‘이는 다 박세희 등과 같은 자들로 조광조와 붕비를 맺고 서로 한 집에서 잤으며, 정사 때의 의망하는 것과 논박하는 것을 다 私論에서 예정하여 요란하기에 이르도록 하였으니, 그 죄를 같이하지 않으면 저 죄받은 자들도 마음이 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광조에게 붙은 자들이 또한 많으나, 여기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 심한 자를 뽑은 것일 뿐입니다. 정컨대 죄 받은 자들과 그 죄를 같게 하소서.]”

2) 『中宗實錄』, 「中宗 15年 1月 13日條」 참조.

3) 『中宗實錄』, 「中宗 16年 7月 25日條」 참조.

4) 『中宗實錄』, 「中宗 16年 9月 28日條」 참조.

5) 『中宗實錄』, 「中宗 33年 3月 15日條」 참조.

6) 임채명,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7) 강소영, 「申光漢의 漢詩에 나타난 唐詩風의 特質」, 『東方學』 6, 한서대학교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0.; 심경호, 「企齋 申光漢論」, 『韓國漢詩作家研究』 4, 태학사, 1999.; 류하영, 「申光漢의 詠史詩 研究」, 『한어문교육』 제13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5.; 유희진, 「申光漢의 詩에 나타난 상상력과 사유방식 -16세기 前半 館閣文人 漢詩의 轉變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제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윤채근,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등 다수가 전한다.

작가의식이 錯綜된 결과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고는 신광한의 문학작품을 그의 의식세계와 연계하여 살피려는 연구⁸⁾ 목적의 一環으로 신광한이 거주했던 지역과 그의 문학작품과의 연관 고리를 찾아보려고 한다. 작가가 처한 地理的 位置와 자연 환경은 어떠한 형태로든 작가의 작품 세계에 투영되는데 특히 신광한에게 京畿道 驪興과 江原道 眞珠현 강원도 삼척시⁹⁾가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두 곳은 작가가 失意 후 만나게 되는 공간이라는 점과 문학 세계 구축에 있어 진전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준 장소라는 점에서 공통점⁹⁾을 지니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 두 지역 중 우선 京畿道 驪興 지역에 포커스를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II장에서 신광한이 실각 후 자신의 거주지를 경기도 여흥 지역으로 택한 이유를 살피고 그를 통해 15년의 우거기를 겪는 동안 작가의 심리 상태를 추론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여흥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구체적 시 작품을 들어 본다. 이를 통해 작가의 교유 정황을 살필 수 있을 것이며 작가의식의 일단면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이후 기재 신광한 뿐 아니라 당시 기묘사화로 실각하였지만 목숨은 扶支했던 여러 문인들의 복잡한 심리상을 이해하고, 경기도

8) 줄고,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의 의식세계(意識世界)에 대한 일고찰(一考察) -소옹(邵雍) 흠모(欽慕) 양상(樣相)을 중심(中心)으로-」, 『漢文學論集』, 29집, 근역한문학회, 2009.; 「『皇華集』을 통해 본 企齋 申光漢의 작가 의식 -明使 張承憲과의 酬唱 樣相을 中心으로-」, 『漢文古典研究』 23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에서 문학작품과 작가의식과의 연계작업을 시도하였다.

9) 京畿道 驪興은 신광한 시 작품 창작의 주무대가 된다. 신광한의 문학 작품들에 창작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재집』 수록 차례가 창작 시기순으로 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驪興에서 지어진 정확한 작품 수를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의 생애와 시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대부분의 작품들이 寓居期에 지어졌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江原道 眞珠에 대해 신광한은 「眞珠軒記」에서 “觀止於此。難爲山水也[여기에서 보는 것을 마칠 것이니 산수를 말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하여 그 풍광을 극찬했으며, 그가 지은 『企齋記異』에 수록되어 있는 「崔生遇眞記」에서는 三陟의 頭陀洞天 무릉계곡을 배경으로 주인공 최생의 신선체험을 허구화하고 있다. 이 두 지역이 작가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일대를 근거하여 모인 문인들의 교유 정황을 살피는 데에 一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驪興 地域 卜居의 意味

옛부터 先人들은 좋은 조건을 갖춘 집을 찾아 이사를 하였다. 조선후기 실학자 李重煥(1690-1752)이 『擇里志』¹⁰⁾에서 말한 터 잡이의 4대 조건-地理·生利·人心·山水-은 비단 한 시대에만 국한하여 만들어진 기준은 아닐 것이다. 신광한도 파직된 후 서울을 떠나 鄉村에 칩거하기로 결심하면서 자신이 거처할만한 곳을 물색했을 것이며, 결국 경기도 驪興 지역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15년간 생활하였다.

조선전기 특히 16세기 향촌 생활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림 또는 사족이 향촌에 在地的 기반을 두고 생활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유배나 은거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향촌에서 지내게 된 경우이다.¹¹⁾ 이 두 가지 경우 중 신광한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신광한이 정치적 실각 후 경기도 여흥에 정착하려고 한 이유를 추론해 봄으로써 당시 그의 심리 상태를 읽어내고, 전면에 드러내지 못했던 내면의 希求를 살펴본다.

1. 서울과의 근접성

신광한의 향촌 생활은 향촌에 在地的 기반을 두고 생활하면서 자연과

10) 李重煥, 『擇里志』, 「卜居總論」, “대저 살 터를 잡는 때에는 첫째 지리(地理)가 좋아야 하고, 다음에 생리(生利)가 좋아야 하며, 다음에 인심이 좋아야 하고, 또 다음은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에서 하나라도 모자라면 살기 좋은 땅은 아니다.[大抵卜居之地 地利爲上 生理次之 次則人心 次則山水 四者缺一 非樂土也]”

11) 최재남, 「조선전기 향촌 체험 한시와 시가 향유」, 『韓國漢詩研究』 16집, 한국한시학회, 2008, p.67. 참조.

同化되는 삶을 지향했던 여타 문인·관료들과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신광한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강요되지 않은 선택적 귀향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사실 기득 세력들에 의한 암묵적 강요로 빚어진 불가피한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賜死되거나 流配刑을 받는 등의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않았지만, 30대의 젊은 나이로 “어리석고 망령되다[愚妄]”라는 죄목을 쓰고 살아야 하는 悲哀와 挫折感이 어떠했을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목숨을 扶支하기 위해 同志를 배반한 것은 아니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또한 당장 物議가 두려워 運身할 수 없는 상황만으로도 실천적 지식인의 삶을 지향하던 스스로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주었을 것이다. 은거지를 경기도 여흥으로 결정한 신광한의 고민 안에는 歸京에 대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물론, 신광한은 당시 정치적으로 입지가 약화될 대로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伸復權에 대한 希求를 문면에 노출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흥으로의 낙향은 중앙과 접근이 용이한 곳에 터를 잡음으로써 정보력을 유지하고, 근접 지역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인식시킴으로써 빠른 서용의 기회를 찾으려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시작품을 통해서 그의 좌절감과 歸京에 대한 희구를 엿보기로 한다.

名利場中膝未降	명예 이익 벼슬 좇아 무릎 붙일 틈 없다가
白頭今復倚南窓	흰 머리로 이제 다시 남쪽 창에 기대었네
新居生理成微業	새 집에선 생계 위해 작은 일들 꾸리려니
故國煙花隔大江	서울의 봄 경치는 큰 강물에 막혀있네
心折停雲迷去路	갈 길을 미혹하는 구름에 마음 꺾이고
意闌春酒盞深缸	술독에 넘쳐나는 봄 술에 생각 막히네
傳聲莫道無魚雁	소식 전할 기러기와 잉어 없다 하지 말라
天上池中足有雙	하늘 위와 연못 속에 두 마리면 족한 것을 ¹²⁾

12) 申光漢, 『企齋集』 卷2, 「東江相公用江韻 作三七篇 篇中二韻 有寄意於某者 且賦讀書堂昔年事 亦因其意復之 [동강상공이 강(江)운을 사용하여 시 21편을 지었다. 시 속에 두 운은 어떤 것에 뜻을 부친 것이었으니, 또한 독서당

東江相公은 東江子, 곧 金安老(1481-1537)를 지칭한다.¹³⁾ 신광한과 함께 賜暇讀書를 했으며¹⁴⁾, 관직 생활을 하거나 유람을 함에 있어 함께 하는 가까운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¹⁵⁾ 이 시는 신광한이 여흥에 거주한지 5년이 넘어선 1527년(중종 22) 가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¹⁶⁾ 당시 李荇(1478-1534)은 「仲秋有懷之什 奉寄清心使君 兼示東江子」라는 시를 지어 金安鼎(1476-1533)·김안로에게 보냈는데 이 시에 대해 김안로가 21편의 차운시를 지어 여주에 있는 큰 형[김안정]과 金安國(1478-1543)·신광한에게 보낸 것이다. 김안로는 시 속에서 “은혜롭게 함께 독서당에서 혀를 놀려 강독했고 목마르면 차 술 데워 강물 소리 들었었네[恩共書堂 翻講舌 渴澆茶鼎聽鳴江]”¹⁷⁾라고 하였는데, 신광한이 자신의 경험과의 교차점을 발견하고는 관직기를 회상하면서 지은 것이다.

이 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頷聯과 頸聯이다. 頷聯에서 새로 정착한 여흥에서의 삶을 “생계 위해 작은 일들 꾸린다.[生理成微業]”라고 표현하면서 “서울의 봄 경치[故國煙花]”를 그리워하고 있다. 자연과 동화되

에서의 지난 일들을 적은 것이다. 나 또한 그 뜻에 답하였다.] 其一, p.250c.

- 13) 金安老, 『希樂堂稿』 卷3, 「又用前韻」 其六, p.307b, “지금 나의 귀양지가 동강에 있으니 이 때문에 또한 동강자라고 불렀다.[今余謫地有東江 故亦號東江子]”
- 14) 金安老, 『希樂堂稿』 卷3, 「又用前韻」 其六, p.309a, “국경[김안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독서당에서 함께 했으며, 한지[신광한]는 가장 마지막에 와서 함께 했다. 오래지 않아 내가 당상관에 오르게 되어 떠나왔다.[國卿, 終始與同於讀書堂. 漢之, 最後來同處. 未久, 余陞堂上去.]”
- 15) 申光漢, 『企齋集』 卷2, 「東江相公用江韻 作三七篇 篇中二韻 有寄意於某者 且賦讀書堂昔年事 亦因其意復之」 其二, p.250c, “조화가도 퇴근해도 서로 만나 함께 하니 독서당(讀書堂) 운모창(雲母窓)도 같이 갔었다오 은행 나무 숲이론 곳 북쪽 절을 유람했고 그물 쳐서 잉어 잡으며 동쪽 강을 완상했다(후략) [朝回相遇卽相降 同去讀書雲母窓 鴨脚堆林遊北寺 琴高薦網賞東江….]”
- 16) 김안국의 『모재집』 수록 시들은 대부분 저작 시기순으로 되어 있다. 같은 운으로 지어진 시 「以營小墅, 往留梨湖. 次李擇之韻. 寄驪江金太守震卿」(『慕齋集』 卷5, p.097c.)가 丁亥年[1527]에 수록되어 있다.
- 17) 金安老, 『希樂堂稿』 卷3, 「又用前韻」 其五·其六, p.309a.

어 농사꾼의 삶을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미미한 일[微業]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포부를 펼 수 있는 서울[故國]을 다시 그려보지만 한강[大江]에 가로 막혀 소식을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와의 물리적 거리는 비교적 가깝지만 작가가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상당했던 것이다. 頸聯에서는 “마음 꺾인다[心折]”·“생각 막힌다[意闌]”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작가의 좌절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워한다고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 그 시름을 잊기 위해 부질없이 술잔만 당기게 되는 것이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계절은 봄이다. 봄이 되어 만물은 소생하고 약동하는데, 상대적으로 점점 쇠잔해지고 무력해지는 자신의 모습이 대조되어 그 상실감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신묘년 7월 13일 여중이 와서 알려주기를 “아! 제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서쪽 채소밭에 오이가 열렸는데 한 꼭지에 두 열매가 달려서 합쳐져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략) 오이는 본래 셋으로 나누어지는 물건인데, 지금 두 개의 오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으니 이것은 두개가 하나가 된 것이면서 여섯이 합해진 형상일 것이다. 두개가 하나가 된 것은 음양이 조화되어 하나가 된 것이다. 여섯이 합해진 것은 上下사방이 한 가지가 되어 합해진 것이다. 이것이 어찌 상서로움이 아니겠는가? (중략) 지금 나는 때에 버림을 받아서 야인이 되었다. 비록 여안(呂安)의 농사법과 소평(邵平)의 오이심기를 배웠지만 공자(孔子)가 비루하게 여긴 바가 되니 상서로움을 감응시키기에 충분한 선덕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이가 합쳐지는 기쁨이 야인의 밭에서 생겨났으니 유독 어찌서인가? 천천히 생각하고 스스로 깨달아 말하기를 “음양이 조화롭고 상하 사방이 동화되는 것은 진실로 야인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때에 어진 자가 나와서 위로 임금의 덕을 보필하고 아래로 민심을 순하게 하여 사방을 조화롭게 할 수 있을지 어찌 알겠는가? 임금의 덕을 보필할 수 있으면 조화로움이 위로부터 생겨나고, 민심을 순하게 할 수 있으면 조화로움이 아래로부터 생겨난다. 위아래가 조화로워지면 음양이 조화롭게 되고, 음양이 조화롭게 되면 나뉘어졌던 것이 합해질 수 있으니 사방 또한 따라서 조화로워진다. 조화롭기가 이 경지에 이르면 풍년이 넉넉하고, 세도가 빛남을 보게 될 것이니 먹던 것을 벨고 기뻐하고 땅을 두드리며 노래할 것이니 어찌 야인의 상서로움이 아니겠는가?”¹⁸⁾

이 글이 지어진 신묘년은 1531년(중종 26)으로 신광한이 파직된 때 [1521년(중종 16) 7월 25일]로부터 10년이 되던 해이다. 한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는 어느 날, 문득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10년여의 시간들이 새삼 큰 무게로 다가온다. 이에 자신의 텃밭에 자란 ‘奇形 오이’를 매개로 자신의 내면 생각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이삭을 같이 하는 벼[同穎禾]·양 갈래 보리[兩岐麥]·두 그루가 엮어진 나무[連理木] 등이 상서로운 조짐이었듯¹⁸⁾ 자신의 텃밭에 자라난 오이 역시 상서로운 조짐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작가는 자신의 신세가 때에 버림을 받아서[棄於時] 쓰일 수 없으니 어진 이가 나와서[有賢者出] “위로 임금의 덕을 보필하고 아래로 민심을 순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 속에는 지금의 시대가 亂世라는, 다시 말해서 ‘위로는 임금의 덕이 베풀어지지 않고’·‘아래로는 민심이 동요되는’ 시대라는 역설을 담고 있다. 또한 작가는 자신은 野人이니 이러한 상서로운 조짐은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형 오이가 자라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작가 자신, 신광한의 텃밭이다. 여기에서 사고의 역발상이 일어난다. 표면적으로 결맞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내심 작가는 그 상서로운 조짐이 자신에게 내려진 것이라는 사실 또한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신광한은 자신을 不

18) 申光漢, 『企齋集』 卷1, 「圃田合歡瓜說」, p.479d, “辛卯七月之十有三日, 有女奴來告, 且曰噫, 吾見異矣, 西圃之田有瓜焉, 一蒂兩實, 合而爲一. …… 瓜本三分之物, 而今者兩瓜合而爲一, 此兩一而六合之象歟. 兩一者, 陰陽和而爲一也. 六合者, 上下四方同而合也. 茲獨非祥耶歟. …… 今余棄於時而爲野人, 雖學呂安之灌園, 邵平之種瓜, 已爲孔氏之所鄙, 而又無善德足以感召吉祥者. 而瓜之合歡, 生於野人之田, 獨何歟. 徐又自解之曰, 陰陽和而上下四方同者, 固非野人之事也. 安知今之時有賢者出, 能上輔君德, 下順人心, 以同四方者乎? 能輔君德則和自上生, 能順人心則和自下生. 上下和則陰陽和, 陰陽和則分者可合, 而四方亦從而和. 和而至於此, 將見豐年穰穰, 世道熙熙, 舍哺而嬉, 擊壤而歌, 豈非野人之祥也歟? ……”

19) 申光漢, 『企齋集』 卷1, 「圃田合歡瓜說」, p.479d, “…… 古有同穎禾 兩岐麥 連理木, 未聞以爲不祥也. 然則斯瓜也抑亦其是之類歟? ……”

賢者로 지칭하지는 않았다. 다만 때에 버림을 받은 野人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는 미천하여 多能했던²⁰⁾ 孔子에 스스로를 비유하고 있다. 賢者의 출현을 바라는 마음의 이면에는 좋은 때를 다시 만나 작가 자신이 그 현자의 역할을 담당하여 懷才不遇를 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또한 배어있는 것이다.

堪笑詩魔未可降	가소롭게 시 짓는 병 떨쳐내지 못한지라
十年功業在燈窓	십 년 동안 공들인 일 등불 앞에 다 있다.
罇前忽得羽書檄	술자리서 새 깃 꽃은 급한 전갈 문득 받아
醉裏如聞飛渡江	취중에도 나는 듯 강 건너는 것 들리는 듯.
敢把長檣挑屈宋	감히 긴 창 가지고서 굴원(屈原)·송옥(宋玉) 도발하라
勢成高屋建瓴缸	높은 집에서 물 향아리 기울이는 형세로다
毛錐未敵盟壇血	붓 놀리는 솜씨로도 굳이 혈맹 필요 없이
肉袒宜衝壁一雙	어깨를 드러내고 구슬을 물게 되리. ²¹⁾

이 시 역시 江韻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보아 1527년(중종 22) 가을 작품으로 추정된다.²²⁾ 긴 창[長檣]으로 대표되는 武力과 굴원·송옥[屈宋]으로 대표되는 文勢를 병칭하여 무력으로는 문세를 이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뛰어난 문장 실력은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시인 자신의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굴원·송옥, 두 시인을 언급해서 때를 만나지 못한 비애감을 은근하게 내비치고, 그들의 작품이 후대에 인정을 받았듯 자신도 ‘높은 집에서 물 향아리 기울이는[高屋建瓴缸]’ 기세로 다시금 세상에 거침없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尾聯에서 극대화되고 있는데 ‘毛錐’는 ‘붓끝’을 나타내는 것으로, 頸聯의 ‘長檣’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시어²³⁾이다. 文筆만으로도 세상을 평정할 수 있

20) 『論語』, 「子罕」, “吾少也賤 故多能鄙事”

21) 申光漢, 『企齋集』 卷2, 「承示青鶴相公仲秋夜有懷之什 兼奉梨湖相公 用其韻 衍爲五篇 輒復效顰 寄呈使君案下 非敢爲詩 欲不負勤教云爾」, p.249b.

22) 註 16) 참조.

다고 말하고 있다. 시에서 일관되게 밝히고 있는 포부는 시어 ‘毛錐’을 ‘毛遂의 송곳[錐]’으로도 바라보게 한다. “내가 진작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송곳 전체가 다 빠져나왔을 것[使遂蚤得處囊中 乃穎脫而出]”²⁴⁾이라던 毛遂처럼 신광한 역시 자신이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 자신을 알아봐주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寓居가 은둔이나 절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강한 출사 의지를 내면에 담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신광한의 시 작품 중에서 위와 같이 출사 의지를 노골화 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당시 그가 처했던 상황이 세상의 이목에서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신광한의 시작품에 작시 연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문집 수록 차례 또한 연대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의 창작 배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시의 내용과 시 속에 등장하는 교류 인물 등으로 추정해볼 따름이다. 몇 편의 시만으로 그가 여흥으로 卜居한 이유를 정확하게 짚어내기란 쉽지 않지만 그의 시 속에 드러나 있는 출세 지향적 성격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 등을 통해 伸怨復權에 대한 希求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의지 때문에 서울 가까운 향촌에서 서울을 염두에 둔 태도²⁵⁾로 생활하게 된 것이다.

23) 『舊五代史』 卷107, 「史弘肇列傳」, “安朝廷 定禍亂 直須長槍大劍 若毛錐子 安足用哉”

24) 『史記』 卷76, 「平原君虞卿列傳」 16, “…… 有毛遂者, 前自贊於平原君曰, 遂聞君將合從於楚約, 與食客門下二十人, 偕不外索, 今少一人, 願君即以遂備員而行矣. 平原君曰, 先生處勝之門下, 幾年於此矣. 毛遂曰, 三年於此矣. 平原君曰, 夫賢士之處世也, 譬若錐之處囊中, 其末立見. 今先生處勝之門下, 三年於此矣, 左右未有所稱誦, 勝未有所聞, 是先生無所有也. 先生不能, 先生留. 毛遂曰, 臣乃今日請處囊中耳. 使遂蚤得處囊中, 乃穎脫而出, 非特其末見而已. 平原君竟與毛遂, 偕十九人, 相與目笑之, 而未發也……”

25) 최재남은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생활한 문인으로 金安國·金正國을 들었는데, 신광한도 같은 부류라고 생각한다.(최재남, 앞의 논문, p.68. 참조.)

2. 향촌 문화 세력의 형성

기묘사화가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은 사서에 따라 다양하다. 『기묘당적』에는 93인, 『기묘록보유』에는 129인, 『기묘제현전』에는 220인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학포집』의 「기묘당금록」에는 131인, 『전고대방』에는 160인이 수록되어 있고, 여러 기록을 종합하여 95명 정도라는 연구도 있다.²⁶⁾ 이들은 대부분 30세 전후의 의기 왕성한 시기로 이제 막 벼슬길에서 뜻을 펼칠 즈음이었다. 이들 중에서 극형을 받거나 유배지로 이송된 이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비록 신체적인 속박은 받지 않았으나 하루아침에 同志를 잃고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는 內傷을 입은 채 세상의 이목을 피해 은거할 곳을 찾아야만 했다. 梁彭孫(1488-1545)은 능주[전남 화순], 柳成春(?-?)은 해남, 權撥(1478-1548)은 안동, 李迨(1483-1536)는 밀양, 李耜(1480-1533)는 음성으로 이주하는 등 사람들은 전국 각지로 자신의 고향을 찾아 散居하였다.

이 때 서울과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며 경기도 일대에 은거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기재 신광한도 그들 중의 하나이다. 신광한이 여흥 지방으로 자리를 잡기 한 해 전[1520년(중종 15) 봄], 기묘사화로 파직된 慕齋 金安國 또한 이천의 注村에 卜居하였다. 그는 선영의 땅을 팔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곳에 정착하였는데 관직에의 복귀를 기대한 움직임이었다.²⁷⁾ 김안국으로 인하여 여주는 16세기의 중요한 문화공간이 되었으며, 그와 뜻을 같이 하던 同志들이 그의 곁으로 몰려들었다.²⁸⁾ 신광한을 비롯하여 李長坤(1474-1519)[경기도 驪江]·金正國(1485-1541)[경기도 高

26)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할미디어, 2007, p.128.

27) 김안국은 1520년 경기도 이천 주촌에서 향촌생활을 시작한 후 1525년 봄과 1526년 두 차례에 걸쳐 가족을 이끌고 상경하여 정치적 再起를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사가 여의치 못해 벼슬길은 열리지 않았으며, 두 번의 상경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28)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 1, 휴머니스트, 2006. pp.382-383. 참조.

陽]·尹漑(1494-1566)[경기도 坡平] 등이 그들이었다. 이들은 향촌에 거주하던 처사 및 문도들·낙향지를 관할하던 수령들·기묘사회로 인해 은거하고 있는 官人 출신들·경기도 소재 사찰의 승려들과 폭넓게 교류하면서 하나의 향촌 문화 세력을 만들어 갔다.²⁹⁾ 명망 높은 문인들이 서울과 근접한 지역에서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자 상대적으로 기득권층들은 불안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김안국이 驪江에 있을 때 이자가 충주에서, 공[이장근]이 우만에서 신록사로 와서 함께 모였다. 당시 국정을 전횡하던 김안로가 내쳐진 중신들이 한곳에 모여 국사를 논한다고 여겨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³⁰⁾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만으로도 物議를 빚게 되는 상황이었다. 신광한이 “내가 파직된 후로 여주에 집을 짓고 사람 일에 마음을 끊으니, 글 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가까이할 일이 없었다.”³¹⁾라고 한 것이나 김안국이 1528년(중종 23) 겨울 여주 英陵에 당도한 왕의 행렬을 보고도 “물의를 두려워 행궁으로 배알하지 못하고 멀리서 행차만 바라보며 四拜를 올렸다.”³²⁾라고 한 것만 봐도 이러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비록 형벌을 받은 죄수의 몸은 아니지만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으니 행동반경이 넓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遊覽과 作詩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

29) 김안국이 중심이 된 경기도 이촌·여주 지방의 교류상황과 교류인물들에 대해서는 拙稿, 「慕齋 金安國의 交遊詩 研究」, 『한문교육연구』 2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pp.475-476.가 참고가 된다.

30) 趙寅永, 『雲石遺稿』 卷17, 「右贊成琴軒李公 謚狀」, p.348b, “…… 又按月汀漫錄, 曰慕齋在驪江, 陰崖李公籽, 自忠州, 公自牛灣, 來會于神勒寺. 賊臣金安老謂罷散重臣, 會于一處, 議國家事, 將致之重罪.”

31) 申光漢, 『企齋集』 卷1, 「從父兄文景公二樂亭集序」, p.480d, “……予自罷廢而來, 家于驪上, 絕意人事, 雖文墨亦無所親. ……”

32) 金安國, 『慕齋集』 卷5, 「戊子冬十月, 車駕幸驪州, 拜省英陵. 臣安國畏物議, 不得祇謁于行在所, 遙望行塵, 稽首四拜. 感而有作」, p.103a.

나갔고, 비슷한 경험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문화적 동질감을 공유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은 이들은 풍치 좋은 곳에 앞 다투어 別墅를 건립하였다. 학문에 정진하고 문우들과 교유하는 안식처로 삼기 위함이었는데 이곳에서 문화 세력을 형성하여 내일을 기약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려는 의도이기도 했다.³³⁾ 이들은 親友의 별서에 記文을 지어주거나, 堂號를 지어주면서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상대의 삶을 이해하고 위로하였으며, 향촌 생활에 의미를 부여해주시기도 하였다.

뗏목이라는 물건은 재목으로는 사람에게 쓰이지 못하는 것이니, 비록 莊周가 이른 散材라는 것은 아닐지라도, 재목 중에서는 쓸데없는 것을 이르는 것일 것이다. (중략) 요행히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배를 대신하게 되는 임무를 맡게 되는 일은 백에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뗏목이라는 물건은 재목 중에 다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쓰임이라는 것은 쓰이지 않는 것에서 생겨나는 법이다. 이는 바로 장주가 이른 재목으로 쓰이는 것과 재목으로 쓰이지 않는 것 사이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략) 이호의 물이 넘실거리려 하늘과 하나가 될 때가 되면 공은 작은 두건에 간편한 옷을 입고 정자 위에 앉아, 환한 봄날 바람이 잦아들거나 맑은 가을날 달이 밝으면 때때로 이 뗏목을 타고서 부평초나 갈매기와 더불어 떠다니면서 인간세상을 모두 잊고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 것이다. 쓰임이 없는 쓰임은 여기에 이르러 더할 것이 없다 할 수 있다.³⁴⁾

김안국은 별서 곁 이호에 작은 정자 하나를 짓고 泛槎亭이라고 명명하였다. 위의 글은 신광한이 慕齋 金安國의 정자인 범사정에 적은 기문이다. 김안국이 정자를 泛槎亭이라 칭한 이유에 대해 적고 있다. 후자가

33) 김덕진, 앞의 책, pp.129-130. 참조.

34) 申光漢, 『企齋集』卷1, 「泛槎亭記」, p.472a, “…… 夫槎之爲物, 材而不爲人所用者也. 雖非莊周之所謂散材, 而亦可謂材之散者也. …… 幸爲人所得, 則用以代舟楫之任者百一焉. 然則槎之爲物, 材之幸者也. 而用生於不爲用. 此正周之所謂材與不材之間者也. …… 方其湖水渺然, 與天爲一, 公幅巾便服, 坐于亭上, 或春明而風定, 或秋清而月朗, 時乘此槎, 與浮萍鷗鳥, 泛泛乎相忘於人世而不相屬也. 夫不用之爲用, 至此又無以加矣. ……”

범사정의 ‘泛槎’는 공자가 말한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뗏목을 타고 바다에 띄우겠다.[道不行, 乘桴浮于海]”³⁵⁾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하자 이에 대해 부정하고 새로운 견해를 펴고 있다. 혹자가 말한 ‘뗏목을 띄운다[泛槎]’의 의미는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본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있다. 혹자가 『論語』를 인용하면서 ‘乘桴’를 ‘도의不在’로 파악한 데에 대해 신광한은 뗏목을 구성하고 있는 原資材, 즉 그 나무를 ‘散材’와 유사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莊子』의 개념을 끌어 설명하고 있다. 『장자』에서 말하는 散木은 인간들에게 베이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 본성을 유지하는 존재이다.³⁶⁾ 여러가지를 만들 수 있는 재목들은 결국 베이게 되니까 오히려 본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신광한은 『논어』에서의 ‘乘桴’가 아닌 『장자』의 ‘散材’ 논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즉 “김안국 당신은 지금 정치적으로 버려져서 마치 보잘 것 없는 뗏목의 신세 같지만 원래 ‘쓰이지 않는 쓰임’이야말로 진정한 쓰임이니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은근하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위로는 김안국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작가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自慰의 인사라고도 할 수 있다.

신광한의 문집에는 이 「泛槎亭記」 외에도 유생 盧楸(?)의 정자에 ‘十一亭’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적은 기문³⁷⁾도 수록되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광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전하는 시작품이 많은 김안국³⁸⁾은 자신의 문집 안에 李綱[歸來亭]·尹彥卿[所逸亭]·閔推[靜逸

35) 『論語』, 「公冶長」, “子曰 道不行 乘桴浮于海 從我者其由與 子路聞之喜 子曰 由也好勇過我 無所取材.”

36) 『莊子』, 「山木」, “莊子行於山中 見大木 枝葉盛茂 伐木者 止其旁而不取也 問其故 曰 無所可用 莊子曰 此木以不材 得終其天年……”

37) 申光漢, 『企齋集』 卷1, 「十一亭記」, p.475c, “예기치 않게 산골짜기를 마주치자마자 그 속에 정자를 짓고 내게 이름을 지어 주기를 청하였다. 나는 ‘十一亭’이라고 지어 그에게 주었다.[既遇不遇之山溪, 作亭於其間, 請名於余. 余以十一答之.]”

38) 김안국의 교유 인물 범위가 신광한의 경우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 어

亭]·金孟和[幽逸堂]·權況[快逸亭]·鄭世雄[見碧亭]·崔凌[逸觀亭]·柳順源[優哉亭]의 별서에 이름을 지어주며 지은 시들을 여러 편 신고 있다³⁹⁾. 또한 이장곤의 호를 ‘寓灣’으로 지어주게 된 경위⁴⁰⁾도 남기고 있는데 이렇듯 이 시기 향촌 생활을 함께 누렸던 이들은 서로의 별서에 이름을 지어주거나 호를 지어주면서 친분을 더욱 돈독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글을 교환하는 이러한 행위가 소극적 교유의 한 형태였다면,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면서 명승지를 유람하고 시를 짓는 것은 적극적인 교유 형태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정기적인 모임은 주로 향촌에 거주하고 있던 처사나 유생들과 맺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로 시를 짓고 강론하면서 소규모의 문화적 공동체·동질 집단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김안국의 경우, 경기도 이전에 所在한 嚴用順(?-?)의 정자 六槐亭을 중심으로 모여 정기적으로 시회를 열었다. 육괴정이라는 명칭은 모재 김안국·葵亭 姜灑(1492-1552)·溪山 吳慶(?-?)·退休任籛臣(1512-1588)·斗文 成聃齡(?-?)·南塘 嚴用順의 여섯 선비가 우의를 기리는 뜻으로 정자 앞에 여섯 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여섯 명의 선비들을 세상에서는 ‘槐亭六賢’이라

렵고, 교유 상황 또한 완전하게 같은 조건이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교유 인물 범위와 교유 양상에 있어 유사성이 발견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다. 신광한의 경우 시작품에 연대 표기가 없어서 자칫 우거기의 작품이 아닌 것을 牽強附會할 위험성이 있기에, 가급적 저작 시기가 분명한 작품들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설명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저작 시기가 분명한 김안국 작품의 일부를 함께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39) 拙稿, 「慕齋 金安國의 交遊詩 研究」, 『한문교육연구』 2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40) 金安國, 『慕齋集』 卷6, 「寓灣公次前韻以送 復走筆次寄」, p.118c, 夾註, “李二相希剛公罷官, 寓居驪州之祐灣, 自號祐灣病叟. 余謂祐非江湖之雅稱, 請改爲雨灣. 公不受曰, 美則美矣, 涼涼冷冷, 非宜於病骨. 余嗔其狃俗而却推, 復請改以躡字以戲之. 公知其調已, 又却而不聽. 最後請改以寓字. 公拊掌欣然曰, 是真聽於我, 改號寓灣叟, 詩以以及之. 故余聽三字之意, 和復以戲之.”

고 했다고 한다.⁴¹⁾ 이와 같은 정기적인 모임은 신광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三三九九年會	삼진날과 중구일은 해마다 오건마는
舊約猶存事獨非	옛 약속은 남았는데 만날 일은 글러졌네
芳草踏靑今日是	꽃다운 풀 답청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데
淸罇浮白故人違	맑은 동이 흰 술을 옛 친구가 저버렸네
風前燕語聞初嫩	바람 앞의 제비 소리 가녀리게 들리고
雨後花枝看亦稀	비 내린 뒤 꽃가지 또한 보기 어렵네
茅洞丈人多不俗	모동의 장인이야 속된 사람 아니라서
可能無意典春衣	봄옷을 전당잡힐 뜻이 능히 없겠는가 ⁴²⁾

韓致胤은 이 시를 소개하면서 이 시의 저작시기를 계사년(1533년(중종 28)) 3월이라고 밝히고 있다.⁴³⁾ 이 때는 신광한의 나이가 오십이 되던 해였고, 향촌생활을 시작한지 12년차에 접어드는 해였다. 首聯을 통해서 삼진날과 중구일에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로 한 약조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詩題를 통해 좀 더 자세한 정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삼월 삼진날 모동의 박대구 덕장[朴瑑]에게 부치다. 일찍이 허곡의 이군[未詳]과 평촌의 윤생[尹友衡]과 함께 三三九會를 결성하기로 약조하였는데, 이제 허곡은 병이 들고 평촌은 강 건너에 있어 이 모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자는 모동만 남았다. 우연히 읍시 한 수를 지어 보인다.⁴⁴⁾

신광한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온 ‘三三九會’가 어떤 성격의 것이었

41) 『利川市誌』 卷2, 「인물과 문화유산」, 이천시지 편찬위원회, 2001, p.141. 참조.
 42) 申光漢, 『企齋集』 別集 卷5, 「三三日, 寄茅洞朴大丘德璋. 曾與虛谷李君, 坪村尹生, 約爲三三九九之會. 今者, 虛谷有疫, 坪村阻水, 能繼此會者, 獨茅洞在. 偶成一律, 以示之云.」, p.454c.
 43) 韓致胤, 『海東繹史』 卷48, 「藝文志」.
 44) 註 42) 참조.

는지, 구성원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시는 許筠의 『惺叟詩話』에서 ‘淸暢’하다⁴⁵⁾는 평을 받기도 하였는데 신광한의 『기재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제를 참고하여 보면 모동에 사는 박찬·허곡에 사는 이균·평촌에 사는 윤우형이 ‘三三九九會’를 결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유는 “元亨里·虛谷·坪村 세 마을에서 예전부터 ‘삼삼구구회’를 가져왔었다.[元亨 虛谷 坪里三村, 舊有三三九九之會.]”⁴⁶⁾라고 한 데에서도 확인된다.⁴⁷⁾ 그러나 이와 동일한 시가 十淸軒 金世弼(1473-1533)과 陰崖 李耜(1480-1533)의 문집에도 보이면서 ‘三三九九會’의 구성원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김세필과 이자의 기록을 살펴본다.

企齋[申光漢]가 陰崖[李耜]와 十淸先生[金世弼]과 함께 3월 3일과 9월 9일에는 介山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해마다 늘상 하였다. 뒷날 신광한과 이자, 두 사람은 와서 모였는데 선생[김세필]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벗을 잃은 슬픔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 시를 지어 朴大丘[朴瓘]에게 부친다.⁴⁸⁾

가정 12년[1533, 癸巳](54세) 3월에 申企齋[申光漢]과 함께 介山에서 만났다. (선생[李耜]은 十淸[金世弼]·企齋[申光漢]와 함께 3월 3일과 9월 9일에 介山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기를 해마다 늘상 하였다. 이 해 重三日에 선생[이자]와 기재[신광한]은 와서 만났으나 企齋[김세필]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친구를 잃

-
- 45) 許筠의 『惺叟詩話』에서는 이 시를 「三月三日寄朴大立[삼월 삼짚날에 박대립에게 부침]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상 朴大立 이 아닌 朴大丘, 즉 朴瓘에게 보낸 시로 보인다.
- 46) 申光漢, 『企齋集』 別集 卷5, 「元亨 虛谷 坪里三村, 舊有三三九九之會. 丙申九月初六日, 預作申會之約, 至八日, 乃聞妹婿奉羅牧繼夫之逝. 九日, 悄坐悼懷, 感念存沒, 有作.」, p.444c.
- 47) 이 외에도 「李虛谷和三三日詩韻見寄 復步以酬」·「重陽日 招李虛谷 尹坪村」·「李虛谷和寄九日詩二首 復步其韻」·「三月三日 招尹 李兩君 同與踏青」·「癸巳三三日 寄茅洞朴瑞山 兼示虛谷李君 坪村尹君」 등의 시에서 이들의 만남이 지속적이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 48) 金世弼, 『十淸軒集』 卷4, 「三月三日 寄茅洞朴大丘(瓘)」, p.272b, 夾註, “企齋與陰崖及十淸先生, 約以三月三日, 九月九日, 會于介山, 歲以爲常. 後申 李兩公來會, 而先生已下世. 不堪山陽之懷, 作此詩, 寄朴大丘.”

은 슬픔을 견딜 수 없어서 말하였다. 『기재집』을 살펴건대 3월 3일 茅洞의 朴大丘(璨)에게 시를 보내 말하기를 (시 내용 생략) 라 하였으니 이 날 지은 것이다. 선생[이자] 또한 시를 지었을 것이나 산일되어 전하지 않는다.⁴⁹⁾

詩題에 따라 頷聯의 ‘故人’이 가리키는 사람이 다르게 되어 흥미롭다. 『기재집』의 기록에 따르면 몸이 불편한 李虛谷과 거리적으로 떨어진 尹坪村이 될 것이며, 다른 두 기록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金世弼이 그 대상이 된다. 이 시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지어진 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를 통하여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신광한이 ‘三三九九會’를 결성하여 교유를 지속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결국 김세필·이자와는 정기적인 만남을 갖자는 약속만 했을 뿐 세상의 이목과 거리상의 제약 때문에 그 모임이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했고, 경기도에 거주하던 유생인 이허곡과 윤우형과는 지속적으로 실제 모임을 성사시켰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만남과 작품의 창작활동은 당시 경기도 일대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문화의 部面을 이루었을 것이며 상황적 동질감을 공유하는 한 방식으로 역할했을 것이다. 이것이 신광한이 여흥에 卜居하게 된 배경이다.

다음 장에서는 신광한이 거주하던 지역의 공간을 배경으로 한 시 작품들을 살펴봄으로써 당시의 교유 정황을 살피고자 한다.

Ⅲ. 寓居期 交遊詩 研究

기묘사화 후 경기도 일대를 중심으로 일군의 문인 집단이 터를 잡고

49) 李紆, 『陰崖集』, 「年譜」, p.071a, “十二年癸巳(先生五十四歲) 三月, 與申企齋(光漢) 會于介山. (先生與十清企齋, 約以三月三日九月九日, 會于介山, 歲以爲常. 是年重三, 先生及企齋來會, 而十清已下世. 不堪山陽之懷云. 按企齋集, 三月三日, 寄茅洞朴大丘璨詩曰, …… 卽是日作也, 先生似亦有詩, 而逸而不傳.)”

문화 세력을 형성하며 중앙으로의 복귀를 꿈꾸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들의 유람과 시 창작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인 시 작품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신광한이 거주하던 여흥 지역의 명승지-원형리 기재·청심루[팔대수]·신륵사에 집중하여 서술해 보겠다.

1. 元亨里의 企齋



<사진 左: 元亨里의 현위치 / 中: 企齋 터 추정 위치 / 右: 天民川의 현위치>

신광한은 1524년(중종 19) 낙향한 후 成均館 大司成으로 복직하는 1538년(중종 33)까지 15년간 여흥의 元亨里에서 생활하였다. 元亨은 『周易』 乾卦에서 말하는 네 가지 덕에 속하는 것으로 하늘의 뜻을 좇아 살면 크게 길하다는 의미이다. 예기치 않은 불운을 만나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던 시절 신광한은 하늘의 뜻을 기다리며 이곳에서 인내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신광한이 거주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원형리는 현재 京畿道 驪州郡 占東面 元富里 일대로 추정되며, 그 앞을 지났

다는 天民川은 청미천으로 改名된 것으로 보인다.

집을 ‘바란다[企]’고 이름한 것은 무엇을 바란다는 뜻인가? 나의 조부[신숙주]를 바란다는 것이다. 나의 조부는 당을 希賢[어진이를 본받기를 바란다]이라 지었는데, 내가 나의 집을 企齋라고 이름하여 나의 조부를 바란다 하였으니 어진이를 바라는 것이다. 어진이를 바라는 것은 성인을 바라는 것이요, 성인을 바라는 것은 하늘을 바라는 것이니, 바란다고 이를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바라서는 아니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한다. 바라지 못할 것은 없는 것이라고. (후략)⁵⁰⁾

신광한은 원형리에 企齋를 짓고 自號로 삼았으며, 이곳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北宋의 周濂溪가 말하기를 “성인은 하늘을 본받기를 바라고, 현인은 성인을 본받기를 바라고, 선비는 현인을 본받기를 바란다.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⁵¹⁾”고 하였는데, 신광한 역시 현인을 본받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확장시켜 결국 하늘을 본받고자 하는 포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어진이를 본받고, 성인을 본받고, 하늘을 본받기 위해서 그가 힘썼던 것은 독서요, 독서를 통한 私淑이었다. “책에는 어진 사람이 있으니, 어진사람을 보게 되면 그를 바라게 되고, 책에는 성인이 있으니, 성인을 보게 되면 그를 바라게 된다.”⁵²⁾ · “나의 집 안에 향초 하나와 거문고 하나, 책 만권이 있다. 때때로 향을 사르고 거문고를 타며, 거문고를 놓아두고 책을 읽으니, 그 또한 바라는 바가 있지 않겠는가?”⁵³⁾라고 한데에서도 역시 책을 읽고 강학하며 세월을 잊으려 하던 작가의 마음

50) 申光漢, 『企齋集』 卷1, 「企齋記」, p.471d, “齋以企名, 何企也? 企吾祖也. 吾祖名堂以希賢, 吾名齋以企, 企吾祖, 所以希賢也. 希賢則希聖, 希聖則希天, 非企之所可及也. 然則企不可爲歟? 曰將無所不企也. ……”

51) 朱熹·呂祖謙, 『近思錄』 卷2, 「爲學」, “濂溪先生曰, 聖希天, 賢希聖, 士希賢.”

52) 申光漢, 『企齋集』 卷1, 「企齋記」, p.471d, “書有賢焉, 見賢焉則企之, 書有聖焉, 見聖焉則企之.”

53) 申光漢, 『企齋集』 卷1, 「企齋記」, p.471d, “吾齋之中, 有香一炷, 有琴一張, 有書萬卷. 時或焚香而鼓琴, 捨琴而讀書, 其亦有所企乎?”

을 읽을 수 있다.

幽人早起營何事	은거한 이 새벽부터 무슨 일을 경영할까
清曉銷香護性靈	맑은 새벽 향 사르며 性靈을 보존하네
朝日上時虛幌白	아침 해 떠오를 때 텅 빈 장막 환해지고
宿雲收處遠山靑	묵은 구름 걷힌 곳엔 먼 산이 푸르러라 ⁵⁴⁾

원형리에서의 생활을 읽을 수 있는 시이다.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는 시간적 배경은 역동성과 닿아 있다. 무엇인가 실행해 옮길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무엇인가 깨달으면 그 덕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날이 밝기도 전부터 앉아서 아침이 오기를 기다렸던 것’⁵⁵⁾이다. 그러나 이 아침, 은거한 이[幽人]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자신 속에 침잠하여 하늘이 내려준 본성을 보존하려 애쓸 뿐이다. ‘밤사이 쉬면서 양심이 싹튼다고’⁵⁶⁾ 성현도 말했듯이 작가는 전연 俗氣가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새벽에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의 사물들이 제 物色을 찾게 되는 아침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深冬寒幌雪飄緜	깊은 겨울 찬 휘장에 눈보라 몰아치는데
永夜青燈耐寂寥	긴긴 밤에 청등 켜고 쓸쓸함을 감내했네
質自有人方試斷	자질도 사람 있어야 시험 삼아 따져보고
木能無朽可加雕	나무도 썩지 않아야 조각할 수 있는거네
從師莫怪空垂橐	스승 따라 빈털터리 됨 괴이치 마시게나

54) 申光漢, 『企齋集』 卷7, 「企齋曉坐」, p.319c.

55) 『商書』, 「湯誓」, “伊尹乃言曰, 先王昧爽丕顯坐以待旦 ……”; 『孟子』, 「離婁下」, “周公思兼三王以施四事. 其有不合者, 仰而思之, 夜以繼日, 幸而得之, 坐以待旦.”

56) 『孟子』, 「告子上」, “……雖存乎人者, 豈無仁義之心哉? 其所以放其良心者, 亦猶斧斤之於木也. 且且而伐之, 可以爲美乎? 其日夜之所息, 平旦之氣, 其好惡與人相近也者幾希, 則其旦晝之所爲, 有梏亡之矣. 梏之反覆, 則其夜氣不足以存, 夜氣不足以存, 則其違禽獸不遠矣. 人見其禽獸也, 而以爲未嘗有才焉者, 是豈人之情也哉?”

求益元非在掘苗 이익 얻음 원래 조장해서 되지 않는다오
 識路疾驅收汗馬 길 알아야 바삐 몰아 날쌌 말을 얻을거고
 佇看游刃發劘刀 칼을 놀려 날이 선 칼 되어감을 지켜보리⁵⁷⁾

1526년(중종 21) 겨울, 여흥으로 조카사위가 찾아와서 신광한에게 배웠는데 그 때 지어준 시이다. 스승으로서, 벼슬길의 선배로서 전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도 사람이 존재해야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조각이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의 평가도 나무가 존재해야 가능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본질이 있어야 수식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니 본바탕을 다지는 데에 충실할 것을 충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신은 실의한 늙은이라 베풀어 줄 것이 없으나 이 모든 것이 人事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 精進한다면 반드시 날쌌 말[汗馬]과 날 선 칼[劘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다. 신광한은 비록 정치의 일선에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지식인으로서의 삶은 좌초되었지만, 향촌에서 후진 양성에 힘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이 훗날 기묘사림들이 復權하는 기반이 되어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형리의 기재에서는 강학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다. 親友의 방문이 있을 때면 술자리를 벌이며 밤새 답답한 심사를 풀어내는 공간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

萍水重逢亦有時 부평처럼 떠다녀도 다시 만날 때 있겠지
 夜闌秉燭不勝悲 밤 깊도록 등 밝히고 슬픈 마음 못 가누네
 傾心各盡杯中酒 속마음은 잔 가득한 술에다가 쏟아내고
 對面還吟夢裏詩 얼굴 맞대 꿈속에서 지은 시를 되려 읊네
 花硯可能謀後會 花硯 땅서 도모한들 뒷날 모임 되겠는가
 空林終擬訪前期 空林寺를 찾겠다던 이전 약속 지키려네
 春風一杖猶堪策 봄바람에 죽장 짚고 말 채찍질 해 가리니

57) 申光漢, 『企齋集』 卷3, 「丙戌冬 姪女婿尹生來余學 以示之」, p.259d.

見說名山是俗離 이름난 산 俗離山이 그리 볼 만 하다던데⁵⁸⁾
(花硯, 地名, 空林, 寺名, 俗離, 山名.)

三從兄인 申潤輔(1483-1558)가 원형리에 방문했을 때,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쓴 시이다. 신광한은 동쪽 못의 봄물[東池春水]·울정의 밝은 달 빛[栗亭明月]·남쪽 밭의 농요[南畝農歌]·노석의 고기잡이[露石釣魚]·평리의 아스라한 꽃[坪里煙花]·천민천의 먼 배[民川遠帆]·오압산의 저녁 햇살[鴨山秋色]·관야의 갠 눈[鶴野晴雪]을 企齋 八詠⁵⁹⁾으로 꼽을 만큼 기재에서 보이는 자연 풍광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이따금씩 방문객이 있을 때면 함께 밤 늦도록 술을 마시며 자연 경물들을 읊으며 회포를 풀었던 것이다. 지금 이별하면 또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는 인연이기에 가는 밤이 더욱 서글프고 뒷날 다시 만나자는 약속이 공허하게 느껴진다. 花硯은 ‘꽃벼루’, ‘꽃별’이라 불렀던 오늘날의 江原道 橫城郡 屯內面 石門里 일대를 말한다. 아마도 原州牧使를 역임했었던 신윤보가 그 지방의 花硯땅에서의 재회를 기약하였던 듯하다. 이에 대해 신광한은 뒷날 일은 기약할 수 없으니 이전에 방문하기로 약속했던 空林寺 방문이나 지켜볼 계획이라며 속리산이 그렇게도 좋다고 하니 그곳에도 가보고 싶다고 소망을 내비치고 있다. 空林寺는 忠北 槐山郡 靑川面 沙潭리에 있는 절이며 忠北 報恩郡에 있는 속리산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 게다가 靑川은 큰 형과 누이들이 거쳐하고 있는 곳이었다.⁶⁰⁾ 신광한은 두 누이를 보지 못한채 39년을 보냈으니⁶¹⁾ 靑川에 가고 싶은 마음이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신광한은 여흥의 기재에서 강학을 하며 후진을 양성했으며, 이따금 술자리를 마련하여 회포를 풀고 至親에 대

58) 申光漢, 『企齋集』 別集 卷4, 「保恩宰三從兄斐卿, 來訪元亨村墅, 夜對書示. (卽申潤輔)」, p.431a.

59) 申光漢, 『企齋集』 別集 卷3, 「企齋八詠」, p.429c.

60) 申光漢, 『企齋集』 別集 卷5, 「爲省伯兄一姊二姊, 向靑川. ……」, p.452c.

61) 申光漢, 『企齋集』 別集 卷5, 「不見二姊三十九年 謁罷 書一絕 示姪輩」, p.453b.

한 그리움을 달랠던 것을 알 수 있다.

1538년(중종 33) 成均館 大司成으로 복직한 후에도 신광한은 한가했던 원형리의 삶을 그리워하였다. 그러나 公務로 인해 갈 수 없었으니 마침내 1546년(명종 1) 5월 3일 낙산 아래의 京邸에 暴泉精舍를 낙성하였다.⁶²⁾

새로 조성한 낙봉의 폭천정사가 완성되었다. 가정 병오년 5월 3일 동년의 벗 朴瑜의 아들 朴民獻이 인사를 왔다. 그와 더불어 앉아 바위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성 안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였다. (후략)⁶³⁾

이후 신광한은 企齋의 호에 駱峰이라는 自號를 더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시를 남겼다.⁶⁴⁾ 신광한에게 여흥의 원형리라는 공간은 무력한 공간이었으나 동시에 재충전의 공간이었으며, 외로운 곳이었으나 同志를 키울 수 있는 곳이었으며,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는 장소였으나 자연과 벗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리하기에 복직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곳을 그리워하여 도성 안에 비슷한 정사를 만들어놓고 일상의 피로함을 위로받으려 했던 것이다.

2. 淸心樓와 八大藪

淸心樓가 처음 지어진 것이 언제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다. 다만

62) 이종묵, 앞의 책, pp.110-111. 참조.

63) 申光漢, 『企齋集』 別集 卷1, 「新造駱峯瀑泉精舍成. 嘉靖丙午端陽後三日, 有同年之子新恩朴君 民獻 相訪, 與之坐, 指示壘石曰, ‘城中, 復有儷美于斯者乎?’ ……」, p.394d.

64) 申光漢, 『企齋集』 卷6, 「以病蒙特恩 不得赴京 移告在家 看駱峯瀑流 卽事敘懷」, p.304d.를 비롯하여 卷9, 「駱峯夜色」, p.337a.; 「甲寅菊月朏 駱峯書事」, p.341d.; 別集 卷1, 「庚戌仲秋望夕 獨坐駱峯企齋 得慶尙監司季任公寄書 對月書懷 錄呈」, p.399a.; 別集 卷4, 「駱峯夜景」, p.440d. 등 다수의 작품이 전한다.

1,200년대 초에 활동하던 李奎報(1168-1241)의 시에 강루가 나오고, 1,200년대 후반에 朱悅(?-1287)이 청심루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800여년 전에 건립되었으리라 짐작할 뿐이다.



<사진 上: <해동지도> 여주목 청심루 부분(18세기 중엽 제작)
下左: 청심루터
(現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창리 여주초교 건물 뒤편 소재)
下右: 청심루터 맞은편으로 보이는 八大藪 터 (現 공터)

위의 <해동지도>에서도 보이듯 청심루는 여주 관아 안에 있던 건물이었기에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유명한 선비들만 청심루를 소재로 하여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이다⁶⁵⁾ 청심루는 현재 여

65) 조성문, 「八大藪와 淸心樓의 文化生態的 考察 -漢詩를 中心으로」, 『문화생태 차원의 발굴과 보전 방안』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여주의제21, 2008. 12. 5. p.1. 참조. 조성문의 발표문은 청심루와 팔대수의 유래에 관해 이해하는 데

주초등학교 건물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었는데 ‘청심루터’라는 표석만 남아있다. 『世宗實錄地理志』를 참고하면 “八大藪는 驪江 북쪽에 있는데, 옛날부터 貝多藪라 일컬었다”⁶⁶⁾고 하는데 강물의 흐름이 바뀌면서 넓은 늪이 형성되었던 이곳은 민물조개가 많이 잡혔다고 하여 조개늪[貝多藪]이라고 불렸던 것이다. 팔대수는 현재 여주의 북서편 싸리산 산자락부터 북내면 현암리와 북내면 오학리 남측 남한강변에 이르기까지 평탄하게 동서로 길게 펼쳐진 고수부지와 경작지 일대로 추정된다.⁶⁷⁾

청심루와 맞은편으로 보이는 팔대수는 여흥 지역의 대표적 명승지였다. 신광한은 이곳에서 諸君들과 주연을 벌이며 시를 짓곤 하였다.

樓下魚龍亦解降	누대 아래 어룡들도 숨어있기 그만두니
使君爲政歛雲愁	고을 수령 다스림이 구름 낀 창 열어 쫓힌 듯
清心八大無邊月	清心樓와 八大藪엔 끊임 없이 달이 뜨고
神勒黃驪不盡江	神勒寺와 黃驪縣엔 강 물줄기 끝이 없다.
焉用割鷄游利刀	닭요리에 어찌 날카로운 칼날 휘둘리오?
莫須嘔酒費深缸	술 뿜는데 깊은 술독 허비하진 말아야지
一炊未熟人先老	기장밥이 익기 전에 사람 먼저 늙어가니
鏡裏分明雪映雙	거울 속 양 귀밑머리 분명 흰 눈 내렸구나. ⁶⁸⁾

태평성세에 절경을 완상하며 노니는 즐거움이 문면에 드러나 있다. 여흥 지역의 손꼽히는 경관으로 清心樓·八大藪·神勒寺·黃驪縣[驪江]을 꼽으면서 고을 수령이 잘 다스려 걱정할 것이 없으니 자연 경관을 벗삼아 돌아보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자의 自嘲的 語調는 頸聯과 尾聯에서 표출된다.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割鷄焉用牛刀]”⁶⁹⁾라고 한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힘을 쓸 일이 전

에 있어 참고할 만 하다.

66) 『세종 지리지』, 「경기·광주목·여흥 도호부」, 한국고전종합 DB.

67) 장동수, 「경기 여주 팔대장림(八大長林) 복원계획」, 『문화생태차원의 발굴과 보전 방안』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여주의제21, 2008. 12. 5. p.4. 참조.

68) 申光漢, 『企齋集』 卷2, 「驪江使君 用江韻 賦二律 求和」, p.250a.

혀 없다고 하였으며, 東漢의 樂巴가 황제가 하사한 술을 입에 머금었다가 내뿜어 비를 만들어서 성도 저잣거리의 화재를 진화했다는 고사⁷⁰⁾를 들면서 술 뱉는데 술독의 술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관료로서 민생에 도움이 되겠다는 꿈을 품은들 그 이상을 실천할 길이 없는 신세이니 마음을 비우고 세월을 잇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부귀영화를 누리 보기도 전에 이미 늙어가고 있다는 표현으로 정치적 좌절과 늙음에 대한 自嘆을 내비치고 있다.

이 시에서 사용된 江韻은 이행 「仲秋有懷之什」이라는 시에서 여주의 경관을 읊는 데에 사용한 운자이다. 이행이 이 시를 지어 김안정·김안로 형제에게 보낸 이래 은거하고 있던 김안국·신광한과 여주 목사 김안정은 이 江韻을 사용하여 시를 지어 서로 교류하였다. 훗날 김안정이 임기가 되어 상경할 때 송별의 자리에서 김안국과 신광한은 모두 이 江韻을 사용하여 淸心樓 四景⁷¹⁾ 시를 지었으니 서로간의 끈끈한 교류를 살필 수 있다.

山似高人瘦不降	산은 고상한 이 닳아 척박해도 굽히지 않고
水如明鏡冷涵窓	물은 맑은 거울 같아 차갑게 창 물들인다
鷗洲夜白沙籠月	백구 물가 밤에 밝아 모래사장 달 감싼듯
官樹霜深錦濯江	관청 나무 서리 깊어 금빛 강물 씻겨진듯

69) 『論語』, 「陽貨」, “子之武城, 聞絃歌之聲. 夫子莞爾而笑曰, 割雞焉用牛刀?…”

70) 歐陽詢, 『藝文類聚』 卷78, 「靈異部上·仙道」, “神仙傳曰……樂巴者 蜀郡人也 正朝大會 巴獨後到 又不飲而南嚔 有司奏巴大不敬 有詔問巴 巴頓首謝曰 臣鄉里以臣能治鬼護病 爲臣生立廟 今旦耆老皆入臣廟 不可委之 是以頗有酒色 臣適來 本縣成都市上失火 臣故嚔酒爲雨以滅火 非敢不敬 罪當可坐 詔原復坐 卽驛書問成都 成都答言 正旦失火 食時有大雨從東北來 火乃息 雨皆作酒臭”

71) 金安國, 『慕齋集』 卷5, 「淸心樓四景 復次容齋相公韻 奉呈金震卿錢席」, p.102c, 夾註, “吾同年金震卿 分不無一麾之唱 然與余湖山杯酒之歎 亦不少 其拱滿而還朝也 祖錢梨湖之詩 既不可得以牽挽 愴慘無聊之餘 謾次容齋平日寄贈詩韻 追道淸心四時登賞之興 若爲誘勸而侯留者 冀尙少淹一刻 以慰惜別無窮之意 兼爲他日弊懷不忘之資云”; 申光漢, 『企齋集』 卷2, 「使君請賦淸心樓四詠 復用江韻」, p.251b.

四座清談飛玉屑 사방에서 맑은 얘기 옥가루가 흩날리고
 十分名醞凸金缸 맛있는 술 가득 차서 황금동이 불룩하다
 煙霞有興長留客 안개노을 흥취 있어 객을 오래 붙잡으니
 鳧鳥差池定幾雙 오리신발 어긋난 게 정히 몇 쌍이었던가⁷²⁾

清心樓 四詠詩 중 한 수 이다. 같은 운으로 지어진 김안국 『모재집』 수록 清心樓 四景詩를 참고해 보면 여주 목사 김안정이 임기가 다 되어 還朝하자 梨湖에서 전별연을 가지면서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안국은 清心樓詩에 대해 “사계절 청심루에 올라서 감상하던 흥취를 떠올리며[追道清心四時登賞之興] 지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전별연이 벌어지고 있는 곳의 모습을 仙境으로 표현하고 있다. 산과 물을 “고상한 이[高人]”와 “맑은 거울[明鏡]”에 비유하여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살리고 있으며, “백구[鷗洲]”와 “관청 나무[官樹]”를 통해 白과 靑의 색채 대비를 이루어 시각적 이미지를 한층 더 선명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곳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까지 만나 시를 지으니 옥가루가 흩날리는 듯 하고[玉屑] 속마음을 터놓고서 취하도록 마시니 황금동이에 담긴[金缸] 술 마냥 그 맛에 매료되는 것이다. 이러한 즐거운 놀이가 점점 끝나가니 아쉬움이 남는다. 게다가 이 모임은 마음 맞는 수령과의 무기한 이별을 하는 자리였기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尾聯에서는 아쉬움의 마음을 채치 있게 표현하였다. 오리 신발[鳧鳥]은 後漢 때의 王喬가 葉令이 되어서 신선처럼 들오리를 타고 京師를 오가곤 했는데 그 오리를 잡고 보니 신발 한 짝만 있더라는 고사⁷³⁾에서 나온 것으로 보통 지방의 수령을 지칭한다. 신선의 땅 같은 이곳의 아름다운 풍광이 조금이라도 더 수령이 가는 걸음을 늦춰줄 수 있다면 그 주춤거리는 모습이 도리어

72) 申光漢, 『企齋集』 卷2, 「使君請賦清心樓四詠 復用江韻」, p.251b, 其三.

73) 祝穆, 『古今事文類聚』 續集 卷20, 「冠履部·飛鳧瀉」, “王喬爲葉令 有神術 每月朔望 常自縣詣臺 帝怪其來數而不見車騎 密令太史 伺望之 言其臨至 有雙鳧飛來 舉羅張之 但得雙瀉”

惜別의 마음에 위로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前灘流月落秋江 앞 여울에 흐르는 달 가을 강에 떨어지고
 夢裏寒聲滿夜窓 잠결에도 추운 소리 밤 창문에 가득하다
 柔櫓暗聞漁艇過 삐걱삐걱 노를 저어 나룻배가 지나가니
 圓沙驚起宿鷗雙 모래톱에 백구 한 쌍 자다 놀라 날아가네⁷⁴⁾

이 시는 청심루에서 하룻밤을 묵으면서 鄭夢周(1337-1392)가 지은 「題驪興樓」⁷⁵⁾ 시의 운자를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기록에 의하면 청심루는 누대 가운데 방이 있었으며, 조선시대 군왕(세종·성종·중종·영조·정조)들이 능행을 하였다가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객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여주를 찾은 임금 이외에도 종종 선비들의 숙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⁷⁶⁾ 이곳에서 신광한은 투숙하면서 시를 지었던 것이다. 가을의 찬 기운이 창문 틈을 타고 드는 밤, 그 고요한 가운데 눈앞에 펼쳐진 모습, 그 靜中之動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여타의 누대와 마찬가지로 청심루도 많은 문인들이 淸心樓韻을 사용하여 시를 지었다. 처음 淸心樓韻(刪韻)을 누가 사용하여 시를 지었는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고려 시대 문신 朱悅이 「淸心樓題次韻」⁷⁷⁾에서 顏·山·間·閑을 사용해서 시를 지은 것이 보이며, 그 이후 李穀(1298-1351)·李穡(1328-1396)·金九容(1338-1384)·徐居正(1420-1488)·金宗直(1431-1492)·申光漢·鄭士龍(1491-1570) 등 많은 문인들이 이 청심루운을 사용하여 시를 지었다.⁷⁸⁾ 또한 權近(1352-1409)·鄭夢周·李荇이 지은

74) 申光漢, 『企齋集』別集 卷4, 「宿淸心樓 次鄭文忠公韻」, p.437c.

75) 鄭夢周, 『圃隱集』卷2, 「題驪興樓(二絶)」, p.592d, 其二, “烟雨空濛渺一江 樓中宿客夜開窓 明朝上馬衝泥去 回首滄波白鳥雙”

76) 조성문, 앞의 논문, pp.6-7. 참조.

77) 朱悅, 「淸心樓題次韻」, “一輪明月湧雲端 鏡裏如逢舊識顏 寶蓋影傾雙立樹 修眉暈倒四回山 鯉傳尺素滄茫外 驪養明珠黑暗間 吟到五更更奇絶 莫教風物片時閑” (조성문 편역, 『여강 청심루』, 여주문화원, 2006, p.13. 재인용)

78) 조성문 편역, 『여강 청심루』, 여주문화원, 2006.에 수록되어 있는 청심루 시

淸心樓詩에도 많은 문인들이 차운한 정황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여흥의 청심루와 팔대수에는 고려시대부터 많은 문인들이 모여서 차운시를 지으며 遊興을 즐겼다. 신광한도 여흥에 거주하면서 일군의 문인들과 종종 청심루에 올랐던 것으로 보이며, 모임을 마친 이후에도 차운시를 통해 청심루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交友들과 안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驪州郡史』를 보면 1945년 8월 22일 해방의 기쁨에 들뜬 주민들이 군수[강진수]가 살던 관사에 불을 질렀는데 이 때 옆에 있던 청심루도 함께 불에 탔다고 되어 있다. 또한 「驪州牧八大藪 新起尺量田案」을 참조하면 1854년(철종 5) 3월 여주목에 있는 팔대수라는 숲 전체를 새로 개간한 후 양안을 작성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팔대수는 이 때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⁷⁹⁾ 현재 청심루는 여주 초등학교 뒤에 그 표석만 남아있으며, 팔대수는 고려대 여주부속병원 뒤쪽 고수부지 일대였다고 하나 그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다. 이렇게 고지도와 고전적들을 통해 그 위치만 가늠해볼 따름이니 당시 여흥 지역에서 향촌 생활을 영위하던 문인들의 풍류를 온전하게 느낄 수 없어서 아쉽다.

3. 神勒寺

『新增東國輿地勝覽』에 “驪州는 국도의 상류 지역에 있으며, 산이 밝고 물이 아름다워 樂土라고 칭하여 오는데, 신록사가 바로 이 形勝의 북편에 있다. 옛날 玄陵의 王師 나옹과 한산 목은 선생과 이공 두 사람이 서로 이어 와서 놀았다. 이로부터 이 절이 드디어 畿左의 유명한 절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들 중에 약 35인의 작가에게서 동일한 운자를 사용한 시 작품들이 확인된다.

79) 조성문, 앞의 논문, p.8. 참조.



<사진 左: 신록사 / 右: 강월헌>

기묘사화 후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 신록사를 유람하고 유숙하는 것이 정례화 되어 있었다. 또한 낙향한 이들을 방문한 親友들과 함께 신록사에 들르는 경우도 많았다.⁸⁰⁾ 이들은 신록사에서 머물면서 詩宴을 벌였고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乞詩에 시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曾聞神勒巒爲臺	신록사는 벽돌로 대 쌓았다 들었는데
此日挈舟泝水來	이 날에야 배 타고 물 거슬러 찾아왔다
初喜林間逢白塔	처음에는 수풀 사이 흰 탑 보고 기쁘다가

80) 金安國, 『慕齋集』 卷5, 「宿神勒寺」, p.106c.; 金正國, 『思齋集』 卷1, 「遊神勒寺 次慕齋兄題尙均師小軸韻 軸有神勒江山圖 畫甚妙 并十清軒金公頌序 詩亦甚佳」, p.011b.; 朴祥, 『訥齋集』 續集 卷1, 「宿驪州神勒寺 留別靈運」, p.008b.; 金世弼, 『十清軒集』 卷4, 「再遊神勒寺 醉題尙均師詩軸 軸中有十清金公頌詩序」, p.271b, 등 기묘사립들의 신록사 유람 정황이 드러나 있는 시들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却慙門外踏青苔	되려 문 밖 푸른 이끼 밟으면서 부끄럽네
沈吟只愛春堪賞	음미하니 사랑할 건 봄 경치 감상 뿐
乖久休疑客不回	어긋남이 오래되어 객 안올까 의심말라
領略風光隨手去	자연 풍광 순식간에 지나감을 깨달으니
明朝江口片帆開	내일 아침 강 어귀에 조각배 띄우리라. ⁸¹⁾

말로만 듣던 신록사에 처음 찾아온 소감을 적고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보면 “신록사는 벽돌 탑이 있으므로 속칭 벽절이라 한다.”⁸²⁾라고 하였는데 처음 흰 탑을 보면서 ‘아! 저것이 말로만 듣던 벽돌 탑이구나’ 싶어 반가웠던 것이다. 하지만 이내 문 밖의 푸른 이끼를 밟으면서는 진작 와보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러워 진다. 이어 지금 보고 있는 봄 경치도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이니 내일은 驪江에 배를 띄워 봄 경치를 완상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①

好雨留人故不晴	단비는 손 못가게 깰 기미가 안보이니
隔窓終日聽江聲	창 너머로 종일토록 강물 소리 듣는구나
斑鳩又報春消息	산비둘기 봄 소식을 다시 한 번 전해주려
山杏花邊款款鳴	돌살구꽃 주변 돌며 재잘재잘 우는구나 ⁸³⁾

②

初來却恨尋春早	처음에는 이른 봄에 찾은 것이 아깝더니
未見花開只見僧	꽃 피는 건 못보고서 스님들만 뵈었었네
一夜東風吹雨過	하루 저녁 봄바람이 비를 몰고 지난 후에
川原驚怪曉霞蒸	시내 들관 새벽노을 피어나니 놀랍도다 ⁸⁴⁾

이 시가 처음 신록사를 방문했을 때 같이 쓴 시인지 아닌지는 알 수

81) 申光漢, 『企齋集』 卷2, 「春遊神勒寺(一名巖寺)」, p.247b.

82) 『新增東國輿地勝覽』 卷7, 「京畿·驪州牧」

83) 申光漢, 『企齋集』 別集 卷4, 「阻雨 信宿神勒寺」, p.436b.

84) 申光漢, 『企齋集』 別集 卷4, 「宿神勒寺 夜雨 花盡開」, p.437b.

없으나 정황상 ①시와 ②시는 같은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가 와서 예기치 않게 신록사에 머무르고 있지만 시에서 보이는 작자의 심리 상태는 오히려 유쾌하다. 부득이하게 하루 더 머무르게 된 것이지만 덕분에 봄 풍광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가진 것이다. 斑鳩라는 비둘기는 이 새가 울면 비가 온다고 하여 喚雨鳩라고도 불리는 새이다. 비에 막혀 유숙하고 있지만 불어난 강물 소리와 산비둘기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한가롭게 느껴진다. ②시에서는 단비를 한결 더 반가워하고 있다. 사실 작가는 이른 봄에 찾아와서 만개한 꽃을 보지 못해 조금 아쉬웠던 것이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단비가 세상을 적셔주어 온 들뜬에 알록달록 꽃이 가득하게 되었으니 반가운 마음이 더해지는 것이다.

원형리를 배경으로 지은 시나 청심루 시와는 달리 신록사에서 지은 시에는 자조적 어조나 애상의 정조가 드러나 있지 않다. 이것은 신록사를 배경으로 하는 남아있는 시 작품들이 주로 봄에 지어졌기 때문에 계절적 생동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자연스레 동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상의 공간에서 떨어져서 자연풍광을 바라보는 경험은 몰색들을 한결 더 아름답게 느끼게 했을 것이며, 이러한 일탈에서 생기는 해방감이 그에게 좀 더 여유로움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주목사[김안정]이 김안국·金欽祖(?-?)·鄭士龍(1491-1570)과 신록사에서 가을 달을 완상하기로 하였다. 사람을 보내서 초대하였으나 병 때문에 가지 못하였다⁸⁵⁾

『기재집』 수록 시들이 많지 않아서 그 시들만으로는 신록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체적인 교유 정황을 살필 수 없어서 아쉽다.⁸⁶⁾ 하지만 신

85) 申光漢, 『企齋集』 別集 卷5, 「驪興金使君 與金宰相安國 金僉知欽祖 鄭僉知士龍會 翫秋月于神勒寺 遣人相邀 病不能赴」, p.449a.

특사라는 공간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선비들 외에 타 지역의 사립들까지 모아 교류하며 함께 유람할 수 있을 만한 명승지였음은 분명하다. 이곳에서 신광한은 봄꽃을 구경하거나 달을 완상하면서 친지들과 우의를 다졌으며 신록사에 머무는 승려들과도 교류하였다. 승려들은 이름난 문인들을 찾아다니면서 乞詩하여 詩軸에 보관하곤 하였으니, 신광한도 그가 시를 잘 쓴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스님들의 청에 시를 써준 경우가 적지 않게 있었다. 이러한 승려들의 乞詩 문화는 그들의 시축을 통해 서로 떨어진 친구의 안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도 작용하였다.

IV. 結語

본고에서는 기재 신광한이 기묘사화 후 낙향한 경기도 驪興 지역이 그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의미를 찾기 위해 많은 지역 중 경기도 여흥 지역에 卜居한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은 신원복권을 회구하였기에 서울과의 근접성을 염두에 두고 이 지역을 선택하였음을 밝혀내었다. 비록 예기치 않게 실각하였지만 그로 인한 실의에 빠지기보다는 자신감과 관료로서의 포부를 잃지 않았었다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두번째로는 경기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군의 문화 세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들은 강학을 통해 향촌 세력을 규합했으며 실각한 사립들과는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를 격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여흥 지역을 기반으로 지어진 시 작품들을 감상해보았다. 원형리의 기재에서는 일상적인 강학과 至親의 방문에 응하는 작시 활동이 이루어졌다. 청심루와 팔대수에서는 술한 詩宴과 酒宴이 이루어졌는데 청심루가 관아에 속해 있는 정자이다 보니 여주목사의 초대를 받은 선비들과 그 선비와 함께 하

86) 鄭士龍 『湖陰雜稿』 卷1, 「過神勒寺 有懷舊遊 錄奉震卿使君」, p.026b.을 참고하면 실제로 모임이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는 유생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록사는 멀리 떨어진 친우들이 모여 그간의 회포를 푸는 장소로 역할하였다. 신록사의 경관은 경기도 동쪽[畿左]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절경이었으니 이곳에서 자연을 완상하면서 긴 이별의 정한을 달랐던 것이다.

기재 신광한의 경우에 국한하여 분석한 본 연구가 16C 경기도 지역에 낙향했던 일군의 문인들의 성격을 포괄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적 취약을 안고 있는 이 시기 사림 문학에 대한 지역학적 접근은 신광한의 의식세계는 물론이고 동시대에, 같은 아픔을 지니고, 같은 지역에 살았던 이들의 내면세계를 살피는 데에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參考 文獻>

- 『論語』 『孟子』 『商書』 『莊子』 『史記』
 金世弼, 『十清軒集』, 『韓國文集叢刊』 18, 한국고전번역원.
 金安國, 『慕齋集』, 『韓國文集叢刊』 20, 한국고전번역원.
 金安老, 『希樂堂稿』, 『韓國文集叢刊』 21, 한국고전번역원.
 申光漢, 『企齋集』, 『韓國文集叢刊』 22, 한국고전번역원.
 李 紆, 『陰崖集』, 『韓國文集叢刊』 21, 한국고전번역원.
 李重煥 著·허경진 譯, 『擇里志』, 한양출판, 1996.
 趙寅永, 『雲石遺稿』, 『韓國文集叢刊』 299, 한국고전번역원.
 韓致齋, 『海東釋史』.
 『中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舊五代史』

강소영, 「申光漢의 漢詩에 나타난 唐詩風의 特質」, 『東方學』 6, 한서대학교

- 부설 동양고전연구소, 2000.
- 김덕진, 『소쇄원 사람들』, 다할미디어, 2007.
- 류하영, 「申光漢의 詠史詩 研究」, 『한어문교육』 제13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05.
- 손유경, 「慕齋 金安國의 交遊詩 研究」, 『한문교육연구』 27호, 한국한문교육학회, 2006.
- , 「企齋 申光漢의 意識世界에 대한 一考察 -邵雍 欽慕 樣相을 中心으로-」, 『漢文學論集』 29집, 근역한문학회, 2009.
- , 「『皇華集』을 통해 본 企齋 申光漢의 작가 의식 - 明使 張承憲과의 酬唱 樣相을 中心으로-」, 『漢文古典研究』 23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1.
- 심경호, 「企齋 申光漢論」, 『韓國漢詩作家研究』 4, 태학사, 1999.
- 유호진, 「申光漢의 詩에 나타난 상상력과 사유방식 -16세기 前半 館閣文人 漢詩의 轉變과 관련하여」, 『고전문학연구』 제38집, 한국고전문학회, 2010.
- 윤채근,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어문논집』 36집, 안암어문학회, 1997.
-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 1, 휴머니스트, 2006.
- 임채명, 「企齋 申光漢 漢詩 研究」, 단국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장동수, 「경기 여주 팔대장림(八大長林) 복원계획」, 『‘문화생태차원의 발굴과 보전 방안’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여주의제21, 2008. 12. 5.
- 조성문, 『여강 청심루』, 여주문화원, 2006.
- , 「八大藪와 淸心樓의 文化生態的 考察 -漢詩를 中心으로」, 『‘문화생태차원의 발굴과 보전 방안’에 관한 워크숍 자료집』, 여주의제21, 2008. 12. 5.
- 최재남, 「조선전기 향촌 체험 한시와 시가 향유」, 『韓國漢詩研究』 16집, 한국한시학회, 2008.
- 『利川市誌』, 이천시지 편찬위원회, 2001.

Abstract

*A Consideration on Gijae Shin Gwanghan's Inner World / Son Yoo Kyung**

Gijae Shin Gwanghan (企齋 申光漢 1484--1555) i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writers during the reign of King Joongjong in the sixteenth century. Under the literary influence of Shin Sookju(申叔舟), his grandfather, he had a deep understanding of classics and became a participatory intellectual with radical ideas through exchanges with Sarim(士林) including Jo Gwangjo(趙光祖). However, he was impeached and demoted to the Sheriff of Samcheok with the breakout of the Third Literati Purge of 1519 (Gimyo Sahwa(己卯士禍)) and was dismissed from office in the following year. Losing his political base, Shin Gwanghan kept a low profile in Yeoheung(驪興) for 15 years.

This study associates Shin Gwanghan's literacy works with the areas he resided in. The geographical locations and natural environment are always reflected in a writer's literary world to some extent; especially to Shin Gwanghan, Yeoheung in Gyeonggi-do and Samcheok in Kangwon-do are more than significant. These two places are similar in that the writer resided in frustration and he made a progress in his literature.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Yeoheung in Gyeonggi-do on Shin Gwanghan and his works. First of all, the study examines the reasons he came to live in Yeoheung in Gyeonggi-do from the point of view of his attempt to return to the political world and form a local power group, and then it addresses his poems written while he was based in Yeoheung.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is study that analyzes only Gijae Shin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 curator98@hanmail.net

Gwanghan's case encompasses the whole group of literary scholars who were made to reside in Gyeonggi-do area in the sixteenth century. Nevertheless, a geographical approach to Sarim literature during this period sheds a light not only on Shin Gwanghan's inner world but also on his contemporaries' despite the lack of materials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ner world of the group of literary scholars who shared the same pain, lived in the same area and at the same time.

【Key words】 Shin Gwanghan, sixteenth century, Sarim, Yeoheung

투고일 : 10월 28일, 심사일 : 11월 29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